

2021년 11월 21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목상기도 하겠습니다.

◎ 목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7편 6~7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시편 47편 6~7절]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588(통307)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베드로후서 1장 12~21절(신약p.384)

12.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
15.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19.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말씀선포 /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영국의 국교에 반기를 든 청교도들이 제임스 왕의 박해가 심해지자 1620년 9월 6일 영국 플리머스에서 180톤급 작은 배,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와 25~30명의 선원들이 출발하여 뉴욕 근처 허드슨강 입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닻을 내린 곳은 애초 목적지인 뉴욕이 아닌 보스턴 남단 프로빈스타운이었습니다. 메이플라호는 근처 곳곳을 탐험하면서 폭풍과 원주민들과의 충돌을 피해 서쪽으로 항해를 하다 결국 12월 17일 플리머스를 발견하고 상륙하게 됩니다. 그 해 겨울을 지내는 동안 44명이 굶어죽고 얼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1621년 가을 풍성한 첫 추수를 마치고 도움을 준 90여명의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인디언들을 불러 함께 감사 행사를 열었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을 지키라 명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보급되고 읽힌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들은 인생에 필요한 지혜서라고도 여기고 인문학적인 책으로, 혹은 유대인의 역사와 전례와 전승을 기록하는 책 심지어 그리스 신화와 같이 유대인들의 신화의 내용을 기록한 책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에게 주시는 준엄한 말씀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으로 성도는 성경이 구원을 위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믿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은,

1.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글로 믿느냐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가 허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이 교묘히 꾸며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듣고 본 사실에 근거함을 강조합니다. 본문 12~1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 고 했습니다. 사도 직분의 핵심은 복음의 내용을 직접 체험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암시하면서 자신이 전한 말씀을 성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언이 사람의 뜻을 따라 선포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본문 19~21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샅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경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 “사사로이 풀 것”이라는 헬라어는 “이디아스 에 필뤼세오스”로서 사사로이 라는 단어의 원형은 “이디오스” 이고 풀다는 단어의 원형은 “에필리시스”입니다. 이 뜻은 개인적인 주관과 생각에 맞추어 성경을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때로 성경을 이처럼 사사로이 풀고, 개인의 지식이나 감정, 환경이나 뜻에 따라 이해하면 사람의 필요나 특정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성도는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이시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함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는 근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이 성경을 강조하면서 교묘하게 성경을 사사롭게 해석해 왜곡시킵니다. 성경은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성경의 감동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감동을 받은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정리한 신학을 바탕으로 해석해야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 늘 성경 하나님의 인도하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심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3. 말씀으로 말미암는 복과 저주를 깨달아야 합니다.

- 디모데후서 3장 15~17절에서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복이 임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18~19절에서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사사로운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뜻을 더하거나 말씀의 일부를 빼는 자에게는 영벌이 준비되어 있음을 경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구원 복과 멸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 권위를 지닌 삶의 척도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때 사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단계이지만 여전히 코로나19를 통한 두려움과 불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과 경제, 그리고 자녀와 육체의 질병 등 여전히 매어 있고 풀리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할 제목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를 알고 믿으며 더욱 성령의 충만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롭고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와 같은 훈계와 질책으로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의 복을 누리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과학적, 합리적 사고가 만연한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성경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구원의 지혜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 온전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행하여 살아감으로 말씀의 복을 나의 복으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199(통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 폐 회 / 주기도문